

## 광주·전남공약 일자리·SOC 집중

### 대선 후보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서남권 개발 등 제시

#### 대선 D-16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 주 내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공약 보따리'를 풀면서 광주·전남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거나 그동안 공론화됐던 광주·전남지역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재탕공약' '배끼기공약'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오는 4일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선포식을 갖는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광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30% 이상 확대 ▲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지원 규모 8천억원 증액 등을 광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또 ▲비엔날레 타운 조성 ▲첨단노인건강타운 조성 ▲광주과기원 학부 신설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국립도서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설치 등도 광주지역 공약으로 확정했다.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우주과학정 설치 등을 통한 전남의 우주산업 매카 육성 ▲서남해안 일주도로 조기 완공 ▲포항공대 수준의 대학 유치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진영은 ▲호남운하와 호남고속철도의 임기 내 완공 등 기존 공약 외에도 ▲세계문화

상품 단지 조성 ▲LED 조명도시 선정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동북아 중심 상품거래소 설립 등을 광주지역 공약으로 확정했다.

2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 후보는 ▲광양·여수·순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무안·목포·영암·해남의 환경권 전진기지 육성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 등을 약속하며 호남권을 '대삼각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하는 '호남권 8대 프로젝트'를 밝혔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조성, 전남권역 신경제대특구 건설, 전원형 농촌도시 건설, 전남권내 1시간내 고속교통망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를 자동차, 디지털, 광산업, 첨단부품 산업 등

4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광주 첨단 과학단지 R&D 특구 지정 ▲광주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전남 서남권 개발 및 에너지 매카 육성 등을 광주·전남 공약으로 확정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광주 R&D 특구 지정,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문화중심도시 기반 정비 등을 광주지역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목포권 경제자유지역 지정, 친환경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행복마을 구축 등을 전남지역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 밝힌 성탄 트리

'빛고을' 광주를 따뜻하게 밝혀줄 성탄 트리에 불이 켜졌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맹인환 목사)는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2007년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갖고 이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높이 18m짜리 원뿔형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지난 달 16일 김씨가 송환된 뒤 하루도 빠짐없이 김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상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오전까지 김씨를 구치소에서 쉬게 한 뒤 오후부터 소환해 다른 참고인들과 함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김씨를 5일 재판에 넘기기 위해 김씨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며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 등의 증거물 및 관련 서류와 이 후보 및 한나라당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 또 방대한 분량의 참고인 조사 내용을 정리·분석하는 한편(주)다스나 BBK의 회사 설립과정부터 자금 증자, 이익배당 등에 이르기까지의 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이 후보와 연관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마지막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2일 브리핑에서 "수사가 한창 계속되고 언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는 김씨에 대한 2차 구속기한인 5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 서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광뉴스

## BBK 자금 추적 막판 음인

검찰, 이명박 연루 의혹 수사 결과 5일째 발표

## 옛 전남도청 '애평화관'으로 아시아 민주화 총망라

아시아 민주화 총망라

1980년 5·18광주민주화항쟁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을 총망라하는 '아시아 평화 기념관'으로 꾸며진다.

광주시는 최근 옛 전남도청 본관과 민원실, 경찰청 등을 5·18민주화항쟁을 포함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을 아우르는 아시아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해달라는 계획서를 문광부에 제출했다. 시는 올 초부터 아시아평화기념관 조성을 위해 문광부 및 5·18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문광부에 이를 건의했다. 문광부는 시의 건의와 전남도청 등을 5·18민주화항쟁의 기념공간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단체의 건의에 따라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

## "판세 호남에 달렸다" 기선잡기 총력전

### 대선 후보들 광주·전남서 첫 휴일 유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유세대회를 펼치며 지역표발 공략과 초반 기선 잡아에 안간힘을 기울였다.

(관련기사 4면)

후보들은 첫 주말과 휴일인 1~2일

역대 대선에서 특유의 응집력을 보이며 대선 판세를 좌우해온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일부 후보들은 3~4일 광주·전남 각 지역을 순회하며 표밭갈이에 나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일 광양과 여수, 순천, 광주를 거쳐 목포까지 전남 동·서부를 오가는 강행군을 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초반을 달리고 있는 광주·전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 가진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 발표를 통해 "그동안 호남은 정치만 있고 경제는 없었다"며 "호남도 이제 실속있는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고, 호남민도 이를 쟁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호남의 공간을 든든하게 채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로 이동, 1시간여동안 총장로 일대를 순례하면서 젊은층 표심잡기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일과 2일 전남·북의 시장과 역 등을 찾아 신경제투구 건설 등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호남 표심 잡기 행보를 계속했다.

이 후보는 1일 해남을 5일장터 유세에서 "비리 의혹 투성이인 이명박 후보, 지난 대선때 불법 자금을 받은 이회창 후보, 서민 증산증을 죽게 만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호남이 키워준 민주당 후보인 이인제만이 방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보성~장흥~화순~담양~장성~전북으로 옮겨가며 이동하며 서부벨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후보는 2일 오후부터 3일까지 광주 곳곳을 순회하며 유세를 계속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집중 공략으로 '역전의 발판' 마련에 주력해온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오는 4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발표한 뒤 광주 총장로에서 젊은층 끌어안기를 시도한다. 이어 광주공원에 서 열리는 대규모 유세전을 대선 판세를 뒤엎을 기폭제로 삼겠다는 각오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일 광주 양동시장과 송정리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세를 전개하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이번 주중 광주·전남을 방문해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을 돌리면서 광주·전남지역 공약 발표와 함께 호남표심 잡기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지난달 30일 광양을 기점으로 여수와 순천, 광주와 나주, 목포까지 이어지는 뾰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유망직업 장학금 57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제 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광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 062)220-0541

<p><b>(주)조이트레블</b>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가 57번길 20 대표 전화 (062) 234-3222</p>	<p><b>무안 → 타이페이</b> 타이페이 1박2일 여행 449,000원 타이페이 3박4일 여행 749,000원 타이페이 5박6일 여행 999,000원</p>	<p><b>299,000원</b> (1인당) 신도시/광주/순천 289,000원</p>
<p><b>279,000원</b> <b>449,000원</b> <b>369,000원</b></p>	<p><b>699,000원</b></p>	<p>다양한 상품과 가격 목록</p>